

2024년 10월 25일 설교자 회의

본 문 : 사사기 7장 1-8절

제 목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 지 : 1. 이스라엘 vs 미디안
2. 하나님 vs 미디안

한문장 :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1

이스라엘은 7년동안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1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으로 기동성을 갖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인해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은 산속으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구원자를 세워주셨던 이전과는 다르게, 선지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점차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삿 6:16)

매년 그랬듯 파종할 시기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모인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5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부름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수는 3만2천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병력의 차이가 4배를 뛰어넘는 수였고, 미디안은 군사훈련이 된 정규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비정규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에서 1만명으로, 1만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병력을 줄여가시는 것은 군사력이나 숫자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전쟁이 속하였고,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3만5천대 300명, 45배 차이의 군대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압도적인 승리를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사사기 16장 23-31절

제 목 : 우리를 붙드시는 참된 주인

대 지 : 1. 내 것이라는 착각
2.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문장 :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삼손 내러티브의 시작인 14장의 시작은 역시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가운데, 이전과 다른 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임이던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행할 사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삼손은 장성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으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잉태되기 전부터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행해집니다. 자기의 눈에 옳은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맹신하던 삼손은 결국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 붙잡히고,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진짜 이유는 20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

붙잡힌 삼손은 치욕을 당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다곤의 신전에서 재물을 부리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서야, 삼손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28절에서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기전부터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며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셨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히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서 우리의 삶을 불드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문 : 사사기 21장 15-25절

제 목 : 왕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할 때

대 지 : 1. 내가 왕일 때 찾아오는 혼란

2.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오는 회복

한문장 :

1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2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이 구절은 17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사사기의 반복적인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이 없음으로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영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타락의 정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미가는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삿 17장).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욕망에 따라 종교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강탈하고, 자신들 지파의 신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대로 행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9장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베냐민지파가 모여살던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는데, 베냐민지파의 불량한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레위인 관계를 하게 내놓으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타락은 동성에 마저도 불려온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는데, 밤새도록 능욕하고 결국 죽게 만든 것이죠. 이상 세 사건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게 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고, 이 사건들로 인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발생하여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의 결과는 무질서와 폭력, 그리고 영적 어두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면, 그 끝은 결국 혼란과 좌절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사사기는 영웅들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끝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다윗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조차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참된 질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될 때, 결국 인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과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그 자리를 돌려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감으로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문 : 에스더 4장 13-17절

제 목 : 이 때를 위함이라

**대 지 : 1.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2. 결단과 순종의 역사**

한문장 :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부르심을 깨닫고, 결단과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1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왕후가 되었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친 하만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모르드개의 도전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왕후로서의 자리에 있었지만,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더 4:14). 모르드개의 이 말은 에스더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해 고민하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로 세워진 이유를 깨닫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16)라는 그녀의 고백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을 결의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녀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의 위기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험하고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있는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엑스포지멘터리, 100주년기념주석, 생명의 삶플러스